

유아증언의 신뢰성 연구

The credibility of child testimony

김 재 연*
Kim, Jae Yeon
이 재 연**
Lee, Jae Yeo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between the ability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to describe their experience. Forty 5-year-olds and 40 16-year-olds viewed 12 pictures(Azmitia, 1987) and responded to open-ended, closed and misleading questions. Responses were categorized by the SPSS WIN program into rate of correctness, incorrectness, unresponsiveness and "don't know".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 open-ended questions, the rate of incorrectness by young adults was higher than that of children. On closed questions, children had a higher rate of incorrectness than young adults. On misleading questions, children showed a lower performance in the rate of correctness and "don't know" and the rate of incorrectness by children was higher than that of young adults.

Key Words

유아(child), 증거(testimony), 신뢰성(credibility), 개방형질문(open-end question), 폐쇄형질문(closed question), 유도형 질문(misleading question)

* 한국이웃사랑회 영등포아동학대상담센터 책임상담원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I. 서론

최근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범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인 아동을 수사하거나 법정 상에서 아동이 증언을 하게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아동 성학대 사건만도 매 기일 마다 1-2 건씩 심리에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영흠, 1998). 특히 아동의 성학대의 경우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인 아동과 가해자이외에 목격자가 없는 사례가 많고, 성폭력 이후 시간이 지난 뒤에 뚜렷한 신체적 외상을 보이지 않는 사례가 많아 아동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의 자는 선서무능력자로 하여 증언의 효력이 없으며 증언의 신뢰성 여부는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다. 법관이 아동의 증언능력을 인정하여 증거로써 채택될 경우¹⁾에는 법정에서 설 수 있으며, 가해자의 유죄가 입증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증언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로써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되어 법정에서 서지 못하거나 법정에서 선다하더라도 아동의 증언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가해자에게 무죄로 판결이 나기도 한다²⁾.

사건의 정확한 측면을 배제시킬 수 없지만 이렇게 아동의 증명능력을 법관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진위여부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크게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증언의 증명능력에 관하여 재판부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아동증언의 증명능력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판례의 사유는 아동이 과거의 경험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약하고, 피해 아동의 진술에 있어 일관되지 않는 면을 보인다는 의심 때문이었다.

판례에서 지적된 사유에서는 아동의 기억력이 성인보다 미약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억에 있어서 물리적 상황이 아닌 과거의 배웠던 지식이 필요로 하는 조건에서는 연령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과거의 지식이 별로 적용될 수 없는 물리적 조건에서는 연령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Gris & Hall, 1976; Richman & Pittman, 1976). 또한 아동이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 성인이 진술한 내용과 유사하게 진술할 수 있고(Goodman & Reid, 1986), 치과를 가거나 예방주사를 맞는 일과 같이 아동에게 개인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비밀상적인 사건들은 아주 오래 동안 정확하게 기억된다(박자경, 1998; Fivush, Hudson & Nelson, 1984; Goodman, Aman & Hirschman, 1987). 특히 유아가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와 같이 사물이나 객체에 대한 기억이 아닌 행위에 관한 기억은 유아들도 매우 오래 동안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박자경, 1998; Rudy & Gooman, 1991).

또한 판례에서 지적되었던 유아가 일관되지 못

1) 1991년 대법원에서 성학대 당한 3세의 유아의 증언을 인정한 사례(1991. 5. 10. 대법원 선고 91도579 판결)와 서울지법에서 어머니 피살을 목격한 4세의 유아의 증언을 인정한 사례(1999. 11. 26. 대법원 선고 99도 3986 판결)는 각각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2) 성학대를 당한 5세유아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아 원심법원에 환송된 사례(1992. 7. 14. 대법원 선고 92도874 판결)와 2세 여아를 성추행한 가해자에게 영장을 기각한 사례(조선일보, 1996. 8. 3)는 각각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한 진술을 한다는 점도 아동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질문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 경우, 아동들은 수사과정에서 12회 정도의 질문을 받게 된다(Whitcomb, 1992). 이와 같이 반복되는 수사 중에 아동들은 암시적인 유도질문의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위험이 크며, 이러한 영향들이 후에 아동의 일관된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질문의 요령에 따라 기억의 정확성이 달라지는데, 복잡하고 아동에게 발달적으로 부적절한 질문을 하였을 때 정확한 기억반응이 줄어든다(Carter, Bottoms & Levine, 1996). 또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닌 일상적인 형태의 과거 사건에 관한 정보를 주고 유아와 성인에게 잘못 유도된 질문을 하였을 때 성인에 있어서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아동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아 부정확한 대답을 하게 된다(Lampinen & Smith, 1995).

이러한 측면들을 살펴볼 때 아동의 증언능력에 있어서 문제는 기억력 미약이기 보다는 기억력의 인출방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성인에 비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이나 부정확한 진술을 하는 이유를 인출방법 중 질문유형에 관한 회상기억의 정확성의 문제라고 보고, 질문유형에 대한 아동증언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방형질문과 구체적질문을 하여 아동이 교실에서 소포가 없어지는 각색된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는가에 대해 기억회상의 오류정도를 측정된 결과 개방형질문이 구체적인 질문보다 더 오류가 적었다(Dent, 1978). 질문 유형 중 법정 상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유도질문의 영향에 대해서는 알기 위해서 아동에게 이야기나 그림장면을 보여주고 암시를 주는 유도질문과 암시를 주지 않는 중립질문을 하여 회상의 정확한 반응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중립질문이 유도질문에 비하여 오류를 더 적게 냈다(박자경, 1998; Ceci, Ross & Toglia, 1987; Zaragosa, 1987). 그

리고 유도질문의 영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5세 아동에게 유도질문과 중립질문을 하여 '모른다'사용빈도를 측정하였는데 유도질문이 중립질문보다 유도와 암시에 넘어가 '모른다'사용빈도가 적었다(Carter et al, 1996). 또한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질문유형인 개방형질문, 폐쇄형질문, 유도형질문에 대해서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시차에 따라 정확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개방형질문에서 가장 정확했고, 폐쇄형질문에서는 정확성이 감소하였으며, 유도형질문에서는 정확성이 급격히 저하되었다(이재연, 1998).

아동층 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성인과 유아가 질문유형에 따라 회상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질문유형별로 연구되어왔다.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피험자에게 어떠한 경험을 하게 하거나 그림장면을 보여주고, 개방형질문과 유도형질문에 대해 회상의 정보량과 오류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개방형질문들에 대한 응답은 아동도 성인만큼 정확하였으나 유도형질문에 대해서는 아동이 성인보다 떨어졌다(Ceci et al., 1987; Wells, Tirtle & Luus, 1989; Lampinen & Smith, 1995). 이러한 아동증언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며, 국내에서 아동증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이재연, 1996; 이재연, 1998; 박자경, 1998). 이제까지 국내에서 아동증언능력에 관한 실험연구는 아동층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고(이재연, 1998; 박자경, 1998), 유아와 성인을 대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성인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외국연구의 경우도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질문유형인 개방형질문, 폐쇄형질문, 유도형질문에 있어서 두 가지나 한가지 질문유형에 대해서만 성인과 유아를 비교한 연구로 한정되었다. 또한 회상 기억력 측정에 있어서도 회상량, 오류량, '모른다'사용률 측정에 대해서 한가지나 두 가지측정에 대해서만

성인과 유아를 회상기억을 비교한 연구로 한정되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유아와 청년간의 3가지 질문유형에 따라 정답률, 오답률, '모른다'사용률의 차이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와 형사소송법상 성인으로 간주하여 증언을 인정하는 연령인 만 16세 청년에게 3가지 질문유형에 따른 회상기억의 정확성에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재 법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아도 성

인만큼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는가와 발달상에 있는 유아가 각 질문유형에서 성인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아동에 관한 수사 및 법정에서의 면담법에 시사점을 줌으로써 아동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아동의 증언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채택하여 보다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중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C유치원의 만 5세 유아 40명과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O여자고등학교와 D남자고등학교 만 16세 40명으로 총 80명이였다.

연구대상 선정과정은 유아의 경우 C유치원에서 출석한 유아 중 실험일을 기준 만 5세이면서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아를 출석표에서 전부 뽑은 72명 중에서 남아 20명, 여아 20명을 무선표집하였다. 청년의 경우 O여고 2학년의 전체 15반의 출석부에서 실험일을 기준으로 만 16세이면서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학생을 출석표에서 전부 뽑은 76명 중 20명을 무선표집하였다. D남고 2학년의 전체 12반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부 뽑은 48명 중 20명을 무선표집하였다. 이렇게 표집된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유아가 만 5.5세, 청년이 만 16.5세 이였다.

연구대상의 사회문화적인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이 비슷하도록 거주지를 제한시켰고, 조사대상에 있어서 기억회상에 대한 성차를 통제시키기 위해서 청년과 유아의 성비를 동수로 하였다.

대상의 연령에서 청년을 만 16세로 선정한 이

유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만 16세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하여 법정상 증언이 인정되기 시작하는 연령이고(형사소송법 제159조), 단기기억의 절대용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연령이기 때문이다(Hunter, 1964). 또한 유아를 만 5세로 선정한 이유는 언어에 있어서 어른의 상용언어의 기본형식을 거의 습득할 정도로 발달한다는 근거에 의한 것이다(이강미, 1983).

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개인적인 지능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과 청년을 무선표집한 이유는 아동지능을 특성으로 집단을 나눈 후 기억과제 검사를 한 연구에서 지능수준으로 나눈 집단 내에서도 아동은 같은 양의 정보를 기억할 수 없었으며 개인차 또한 컸다는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Campione & Brown, 1977).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기억회상 자극물과 질문지로 이루어졌다. 기억회상 자극물은 Azmitia(1987)가 아동, 성인, 노인의 회상기억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고, 조현주(1987)가 국내사정에 맞게 보완하여 측정되었던 기억회상 자극물

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질문지는 본 연구자에 의해서 제작되었다.

조현주(1987)의 기억회상 자극물은 각 장면이 집안에서 볼 수 있는 방, 식당, 거실, 공부방, 온실(베란다), 화장실, 부엌, 현관등과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교실, 옷가게, 병원, 놀이터 등의 12장면으로 구성되어졌다. 각 장면은 가로 60cm, 세로 40cm의 그림카드에 되어 있고, 그 장면에서 기대되어 지고 기억되기 쉬운 3개의 사물과 그 장면에서 기대되지 않고 기억되기 어려운 3개의 사물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회상 자극물은 아동, 성인, 노인에게 12장면을 8초 동안 보여준 후 모든 장면에 대해 자유회상을 하도록 하여 회상한 사물의 갯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것이다.

위 도구를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질문유형별로 청년과 유아의 회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에 적합하도록 기억회상자극물 12장면을 3개의 그림그룹으로 나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각각 4명의 만 16세 청년과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자극물 12장면에 대해 자유회상을 하도록 하여 사전검사를 하였다. 먼저 각 장면에서 유아

가 회상한 사물의 평균 개수를 측정하여 장면과 사물의 난이도를 측정하였고, 4장면씩 3개의 그림 그룹을 난이도가 같도록 나누었다. 같은 방법으로 청년이 회상한 사물의 평균개수를 측정하고 장면과 사물의 난이도를 측정하여 4장면씩 3개의 그림 그룹을 난이도가 같도록 나누고, 3개의 그림그룹이 청년과 유아에 일치하는 4장면으로 <표 2-1>과 같이 나누었다. 첫번째 그림 그룹은 방, 식당, 옷가게, 거실, 두번째 그림그룹은 공부방, 온실, 교실, 현관이며, 세번째 그림그룹은 병원, 놀이터, 화장실, 부엌이며, 3개의 그림그룹의 난이도는 같다. 또한 사전조사를 통해 장면 안에 있는 몇가지 사물에 대해서 아동이 사용하는 용어로 타자기는 컴퓨터, 물조리개는 물뿌리개, 도자기는 항아리 등으로 용어변환을 하였다.

이렇게 나누어진 3가지 그림그룹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을 근거로 하여 개방형질문, 폐쇄형질문, 유도형질문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첫번째 그림그룹인 방, 식당, 옷가게, 거실 장면에 대해서는 ‘방 그림에서 무엇을 봤나요?’라는 식

<표 2-1> 질문유형별 회상측정도구

질문유형	장 면	기억하기 쉬운 사물	기억하기 어려운 사물
첫 번째 그림그룹 (개방형)	1. 방 2. 식당 3. 옷가게 4. 거실	이불, 옷장, 시계 식탁, 의자, 등(식탁전등) 마네킹(근인형), 옷, 옷걸이 T.V, 쇼파, 탁자	휴지통, 스탠드, 수건 커피잔(컵), 주전자, 수저 옷핀, 화장품, 목걸이 재떨이, 항아리, 어항
두 번째 그림그룹 (폐쇄형)	5. 공부방 6. 온실(베란다) 7. 교실 8. 현관	책상, 책, 책장 물뿌리개, 화분, 화초 태극기, 칠판, 지우개 구두주걱, 신발장, 우산	컴퓨터, 그림(액자), 꽃병 새장, 수도 및 호스, 난로 온도계, 오르간, 빗자루 공, 지팡이, 인턴폰
세 번째 그림 그룹 (유도형)	9. 병원 10. 놀이터 11. 화장실 12. 부엌	주사기, 청진기, 휠체어 시소, 그네, 미끄럼틀 거울, 변기, 세면대 냉장고, 썩크대, 가스레인지	체중계, 자동판매기, 붓대 사다리, 나무, 자전거 드라이기, 컵, 신문 우유병, 슬리퍼, 달력

의 질문처럼 각 장면에 있는 사물들에 대해서 무한히 답할 수 있는 개방형질문으로 4개의 질문이 작성되었다. 이러한 개방형질문은 의문사(Wh-) 구조로 이루어져있고, 그에 대한 대답이 무한한 질문으로 과거에 경험한 어떤 것을 스스로 재생함으로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인지적부담이 주로 대답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질문이다(Cazden, 1970).

두 번째 그림그룹인 공부방, 온실(베란다), 교실, 현관 장면에 대해서는 '공부방 그림에서 책꽂이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처럼 그 장면에서 질문한 사물이 있었는지 또는 '공부방 그림에서 꽃병이 있었나요'의 질문처럼 사물이 없었는지에 대해 '예', '아니오', '모른다'를 질문 받는 쪽에서 대답하는 폐쇄형질문을 한다. 폐쇄형질문은 1장면에서 난이도 측정이 된 기억하기 쉬운 사물과 기억하기 어려운 사물 각각 1개씩을 선정하여, 8개의 질문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폐쇄형질문은 언제나 높은 억양을 지니며, 대답으로는 '예/아니오/모른다' 등의 긍정, 부정이면 되고 질문 받는 쪽에서 단지 간단한 대답만 하면된다. 이는 검증을 요구하는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Cazden, 1970).

세 번째 그림그룹 병원, 놀이터, 화장실, 부엌장면에 대해서는 '주어진 정보-새로운 정보'의 문장 형식을 통해 실제있는 사물으로써 주어진 정보를 제공하고 없는 사물을 있는 것처럼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질문함으로써 잘못된 대답을 기대하는 유도질문을 한다(박자경, 1998). 유도질문은 "병원 그림에서 주사기 옆에 있던 가위를 봤었나요?"라는 형식으로 각 장면에서 있었던 사물로 암시를 준 다음, 장면에 없었던 사물에 대해서 있었던 것처럼 질문한다. 한 장면에서 기억하기 쉬운 사물과 기억하기 어려운 사물을 각각 1개 씩 뽑아 4장면에서 8개의 질문을 한다.

검사도구와 질문에 대한 실험도구는 아동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심리학을 전공한 4명의 전

문가에 의해 신뢰도를 검토받았다.

채점방법은 질문유형별 유아와 청년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쉽도록 정답갯수, 오답갯수, 회상하지 못한 사물의 갯수(무응답이나 '모른다'는 반응)를 채점한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율로 나타냈다.

첫째, 개방형질문에서 회상할 수 있는 사물은 '각 장면에 무슨 사물이 있었는지' 묻기 때문에 한 장면에 6개의 사물이 있으므로 4가지 질문이지만 회상할 수 있는 총 사물의 갯수는 24개이다. 따라서 정답률은 회상검사를 실시한 후 개방형으로 질문하였을 때 4장면에 있는 총 사물의 갯수(한 장면에 6개의 사물이므로 총 24개의 사물)에 대한 회상한 사물의 갯수를 비율로 나타냈다. 개방형질문에서 오답률은 개방형으로 질문한 4장면에 있었던 총사물의 갯수(총 24개의 사물)에 대한 그 장면에 없었던 사물에 대해 첨가하여 잘못 보고한 사물의 갯수를 비율로 나타냈다. 개방형 질문에서 무응답률은 회상검사를 실시한 후 개방형으로 질문하였을 때 장면의 총사물의 갯수에 대한 회상해 내지 못한 사물의 갯수를 비율로 나타냈다.

둘째, 폐쇄형질문에서 정답률은 회상 검사를 실시한 후 청년과 유아에게 회상한 4개의 장면에서 질문한 8가지 사물을 '보았는지' 또는 '안 보았는지'에 대해 폐쇄형질문을 받았을 때 그 장면에 있던 사물과 없었던 사물을 정확하게 맞힌 갯수를 비율로 나타냈다. 폐쇄형질문에서 오답률은 위와 같은 8개의 폐쇄형질문에 대해 틀린 대답을 한 갯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폐쇄형질문에서 '모른다' 사용비율은 위와 같은 8개의 폐쇄형질문에 대해 회상하지 못하겠다는 '모른다'를 사용한 갯수의 비율로 나타냈다.

셋째, 유도형질문에서 정답률은 회상검사를 실시한 후 청년과 유아 두 집단에게 회상도구장면에 없었던 8개의 사물에 대해서 그 사물이 있었던 것처럼 암시를 주는 8개의 유도형질문으로 물었을 때에 '아니오'라는 거부 반응을 보이며, 그 사물이

없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맞추는 갯수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다. 유도형질문에서 오답률은 8개의 유도형질문에 대해서 면담자의 암시와 유도에 넘어가 '예(있었다)'라는 틀린 대답을 한 갯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유도형질문에서 '모른다' 사용률은 8개의 유도형질문에 대해서 그 사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회상하지 못할 때에 '모른다'를 사용한 갯수를 비율로 나타냈다.

3. 연구절차

사전검사를 통해 측정도구를 수정보완 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해 검사도구의 적합성 및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피험자 1인당 약 20분 정도였다. 본 조사는 본 연구자에 의해 유아는 유치원 내의 상담실에서 청년은 고등학교의 상담실에서 개별면접법으로 실시되었다. 정보의 노출을 통제하기 위해 보조자가 유아와 청년 모두에게 정보노출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유아는 다른 유아에게 검사에 대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수업 중에 보조자가 한 명씩 상담실로 오도록 하여 실시했다. 또한 청년은 검사가 끝난 후 보조자에 의해 즉시 귀가하도록 시켰다. 연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면담내용을 녹음하였고, 같은 대상에게 질문지에 있는 개방형 질문, 폐쇄형질문, 유도형질문으로 회상검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에 대한 회상검사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연구대상과 친밀감을 형성한 후 청년에게는 "지금부터 각기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는 12장의 장면을 볼 것입니다. 각 장면은 여러개의 사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물이 무엇인지 기억해 두었다가 12개의 슬라이드를 다 본 후에 질문을 하면 대답하시면 됩니다."라는 지시를 한다. 아동에게는 "지금부터 ○○는 선생님과 재미있는 게임을 할 거예요 이 게임은 ○○가 12개의 다른 그림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12개의 그림은 ○○가 자주 볼 수 있는 곳의 그림이에요 그 각각의 그림에는 여러가지 물건이 그려져 있어요 이 물건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12개의 그림을 다 본 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거예요."라고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한다. 이러한 지시 후 각 피험자에게 60cm * 40cm 그림 장면을 2.5의 거리에서 제시하고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고 거기에 있는 각각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후 8초간 장면을 제시한다. 슬라이드 장면을 모두 본 다음, 설문지에 제시된 질문을 한다. 설문에 제시된 각각의 질문마다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침묵하면 다시 한번 물어본 후 더 이상 말이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조사되어진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질문유형에 따라 정답률, 오답률, 회상하지 못한 사물과 '모른다'사용비율에 대해서 청년과 유아 두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따라 개방형질문, 폐쇄형질문, 유도형질문에 대한 회상의 보고에서 수집된 자료를 제시하고 결과를 분석하고자한다. 질문유형에 따른 유아와 청년집단간의 차이를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개방형질문의 갯수, 폐쇄형질문의 갯수와 유도형질문의 갯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율(%)로 제시하였다.

1. 개방형질문에 대한 회상의 보고

회상검사를 실시한 후 개방형질문에 따른 성인과 유아의 정답률, 오답률, 무응답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두 집단의 차이검증을 하였다.

개방형질문에서의 정답률, 오답률, 무응답률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질문을 하여 경험한 내용을 자유롭게 보고하도록 한 개방형질문에서 있었던 사물을 올바르게 답한 유아가 38.75%(9.30개/총24개) 청년이 46.46%(11.15개/총24개)였고, 청년과 유아간 유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있었던 사물에 대해 놓치고서 응답하지 않았던 무응답률은 유아 61.25%(14.70개/총24개), 청년 53.54%(12.85개/총24개)였고, 청년과 유아간의 유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없었던 사물을 있었던 것처럼 첨가하여 잘못 보고한 오답률에 대해서는 유아가 11.88%(0.48개/총24개), 청년이 37.50%(1.5개/총24개)로 유아가 청년보다 더 낮았다($t=-3.11, P<.01$).

그러므로, 질문을 하여 경험한 내용을 자유롭게 보고하도록한 개방형질문에 있어서 청년과 유아의 회상기억에 대하여 있었던 사물을 올바르게 답한 정답률의 차이는 없었다. 즉 개방형질문을 하였을 때 유아도 청년만큼 장면에 있었던 사물을 회상하였다. 따라서 개방형질문에서는 유아도 청년만큼 정확히 회상한 정보량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없었던 사물을 있었던 것처럼 첨가하여 잘 못 보고한 오답률은 청년이 유아보다 더 높았다. 즉 개방형질문을 하였을 때 청년이 유아보다 장면에 없었던 사물을 있었다고 첨가하여 보고하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개방형질문에서는 유아가 청년보다 오류가 적은 경향이 있다. 개방형질문에서 장면에 없었던 사물을 있었다고 첨가하여 보고한 사물을 분석해 보면, 방 그림에서는 옷걸이, 책상, 그림 등이었고, 식당그림에서는 썩크대, 음식, 꽃병 등 옷가게 그림에서 옷장 등이었고, 거실에서는 액자나 시계 같은 물건이었다. 오답의 사물은 청년과 유아 모두 비슷한 사물들이었고, 각 장면에 있을법한 물건들이었다. 청년이 유아보다 장면에 없었던 사물을 있었다고 첨가하여 보고하는 사물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는 청년은 유아보다 더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각 장면에 대해서 대답하는데 비하여 아동은 그 장면에서 보았던 것만을 보고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질문을 하여 경험한 내용을 자유롭게 보고하도록한 개방형질문에서 있었던 사물에 대해 놓치고서 응답하지 않았던 '무응답률'에서는 유아와 청년간에 차이가 없었다. 즉 개방형질문을 하였을 때 장면에 있었던 사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청년과 유아는 모두 무응답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을 하여 경험한 내용을 자유롭게 보고하도록한 개방형질문에서는 유아도 청년만큼

<표3-1> 개방형질문에서 청년과 유아의 회상의 차

	M (SD) 유아(N=40)	M (SD) 청년(N=40)	t
정답률	38.75 (14.71)	46.46 (22.04)	-1.84
오답률	11.88 (14.97)	37.50 (50.00)	-3.11 *
무응답률	61.25 (14.71)	53.54 (22.04)	1.84

* P<.01

의 올바르게 회상을 하였으며, 유아가 청년보다 잘못된 회상을 덜하여 유아가 오류를 적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2. 폐쇄형질문에 대한 회상의 보고

회상검사를 실시한 후 폐쇄형질문에 따른 성인과 유아의 정답률, 오답률, '모른다'사용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두 집단의 차이검증을 하였다.

<표 3-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질문을 하여 경험한 내용을 '예', '아니오', '모른다'로 보고하도록 한 폐쇄형질문에서의 사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올바르게 회상한 정답률은 유아가 66.88%(5.35개/총8개), 청년이 70.94%(5.68개/총8개)였고, 청년과 유아간에 유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사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회상하지 못하는 사물에 대해서 '모른다' 사용비율은 유아가 1.88%(0.15개/총8개), 청년이 5.00%(0.40개/총8개)였고, 청년과 유아간의 유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잘못 회상한 오답률에 대해서는 유아가 31.25%(2.50개/총8개), 청년이 24.06%(1.93개/총8개)로써 유아가 청년보다 더 높았다 ($t=2.38, P<.05$).

그러므로 질문을 하여 경험한 내용을 '예', '아니오', '모른다'로 보고하도록 한 폐쇄형질문에서의 사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올바르게 회상한 정답

률은 청년과 유아 간의 차이가 없었다. 즉 폐쇄형질문에서 유아도 청년만큼 사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회상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유아 두 집단 모두 개방형질문의 정답률 평균보다 폐쇄형질문의 정답률 평균이 더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 결과는 폐쇄형질문이 개방형질문보다 더 많은 정보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방형질문인 자유회상 형식보다 구체적인 사물을 단서로 제시하는 폐쇄형질문이 회상을 촉진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되어진다.

그러나 사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잘못 회상한 오답률은 유아가 청년보다 더 높다. 즉 폐쇄형질문에서 유아가 청년보다 장면이 없었던 사물을 있었다고 하거나 있었던 사물을 없었다고 잘못 보고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가 청년보다 정확성에 있어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개방형질문에서 오답률이 유아가 청년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던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폐쇄형질문에서는 개방형질문에서 보다 청년의 경우 오답률이 낮아진데 비해 유아는 오답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청년보다 유아는 면접자에게 좋은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모르는 사실까지 충실히 대답하려고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또한 사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회상하지 못하

<표 3-2> 폐쇄형질문에서 청년과 유아의 회상의 차

	M (SD) 유아(N=40)	M (SD) 청년(N=40)	t
정답률	66.88 (14.59)	70.94 (14.81)	-1.236
오답률	31.25 (14.43)	24.06 (12.46)	2.384 *
'모른다'사용비율	1.88 (6.67)	5.00 (9.30)	-1.727

* P<.05

는 사물에 대해서 '모른다'사용비율은 청년과 유아 간의 차이가 없었다. 즉 폐쇄형질문에서 청년과 유아는 장면에서 사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회상하지 못할 때 '모른다'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유아 모두 회상하지 못한 사물에 대해서 '모른다'사용을 적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회상하지 못한 사물에 대해 폐쇄형질문에서는 '모른다'를 사용하였고 개방형질문에서 회상하지 못한 사물에 대해서 무응답을 하였다. 폐쇄형질문에서의 '모른다'사용은 개방형질문의 회상하지 못한 사물에 대한 무응답률 보다 더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폐쇄형질문이 구체적인 사물을 단서로 제공하는 질문형식으로 더욱 기억의 회상을 촉진 시켰기 때문에 회상하지 못한 비율이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청년과 유아 모두 회상하지 못한 사물에 대해서도 대답을 하여 정답을 맞추려고 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따라서 질문을 하여 경험한 내용을 '예', '아니오', '모른다'로 보고하도록 한 폐쇄형질문에서는 유아도 청년만큼의 올바르게 회상을 하였으나, 유아가 청년보다 잘못된 회상을 더 많이 하여 유아가 청년보다 오류를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3. 유도형질문에 대한 회상의 보고

회상검사를 실시한 후 유도형질문에 따른 성인과 유아의 정답률, 오답률, '모른다'사용비율의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두 집단의 차이검증을 하였다.

유도형질문에서 정답률, 오답률, '모른다'사용비율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질문형식의 암시를 통해 왜곡된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유도형질문에서 유도에 넘어가지 않고 올바르게 회상한 정답률은 유아가 45%(3.60개/총8개), 청년이 78.44%(6.28개/총8개)로 유아가 청년보다 더 낮았다($t=-6.27, P<.01$). 그리고 유도한 내용에 대해서 회상하지 못할 때의 '모른다'사용비율은 유아가 0.94%(0.08개/총8개), 청년이 10.94%(0.88개/총8개)로 유아가 청년보다 낮았다($t=8.72, P<.01$). 그러나 유도에 넘어가 잘못된 회상을 한 오답률은 유아가 54.06%(4.33개/총8개), 청년이 10.63%(0.85개/총8개)로 유아가 청년보다 높았다($t=-4.33, P<.01$).

그러므로 질문형식의 암시를 통해 왜곡된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유도형질문에서 유도에 넘어가지 않고 올바르게 회상한 정답률은 유아가 청년보다 낮았다. 즉 유아가 청년에 비해 없었던 사물에 대해 있었다고 암시를 줄 때 없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회상한 정보가 낮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유도형질문에서 유아가 청년에 비해 정확히 회상한 정보량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청년은 유아에 비해 암시적인 유도질문에 잘 넘어가지 않고 사실대로 보고하는데 비해, 유아는 면담자가 없었던 사물을 있었던 것처럼 유도하는

<표 3-3> 유도형질문에서 청년과 유아의 회상의 차

	M (SD)	M (SD)	t
	유아 (N=40)	청년(N=40)	
정답률	45.00 (28.28)	78.44 (18.34)	-6.27 *
오답률	54.06 (28.64)	10.63 (13.14)	8.72 *
'모른다'사용비율	.94 (5.93)	10.94 (13.33)	-4.33 *

* P<.01

데에 거부하지 않고, 면담자가 의도하는 대로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도에 넘어가 잘못된 회상을 한 오답률은 유아가 청년보다 더 높았다. 즉 유아가 청년에 비해 없었던 사물에 대해 있었다고 암시를 줄 때 암시에 넘어가 있었다고 잘못 보고한 경우가 많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청년은 유아보다 질문의 암시성에 대해 영향을 덜 받는데 비해, 유아는 질문의 암시성에 대한 영향을 청년보다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청년보다 유아가 면담자가 의도하는 대로 '예'라고 대답하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어진다.

또한, 유도질문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회상하지 못할 때의 '모른다'사용은 유아가 청년보다 낮았다. 즉 유아가 청년보다 없었던 사물에 대해

있었다고 암시를 줄 때 회상하지 못한 사물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년의 경우 유도형질문에서 자신이 회상하지 못한 것과 암시에 의해 영향을 받은 기억에 대해서 '모른다'를 사용하는데 비하여 유아는 자신이 회상하지 못한 사실과 암시에 의해 영향을 받은 기억에 대해서 '모른다'를 잘 사용하지 않고 면담자의 의도대로 대답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따라서 유도형질문에 대해서 유아는 청년에 비해 올바르게 회상한 비율이 낮았으며, 유아가 청년보다 잘못된 회상을 더 많이 하여 유아가 청년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가 청년보다 회상하지 못하는 기억에 대해서 '모른다'사용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년과 유아를 대상으로 질문유형에 따른 회상기억의 차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방형질문에서는 유아도 청년만큼의 올바르게 회상을 하였으며, 유아가 청년보다 잘못된 회상을 덜하여 유아가 더 오류가 적은 회상을 하였다. 폐쇄형질문에 대해서는 유아도 청년만큼의 올바르게 회상을 하였으나, 유아가 청년보다 잘못된 회상을 더 많이 하여 유아가 청년보다 정확성에 대해서는 떨어졌다. 유도형질문에 대해서 유아는 청년에 비해 올바르게 회상한 비율이 낮았으며, 유아가 청년보다 잘못된 회상을 더 많이 하여 유아가 청년보다 정확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유아가 청년보다 회상하지 못하는 기억에 대해서 '모른다'사용을 덜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질문을 하여 경험한 내용을 자유롭게 보고하도록 한 개방형질문에서 청년과 유아의 회상

기억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있었던 사물을 올바르게 답한 정답률과 있었던 사물에 대해 놓치고서 응답하지 않았던 무응답률에서 청년과 유아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유아도 청년만큼 회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기억을 한다는 선행연구결과들(Goodman & Reid, 1986; Dent, 1978)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기억에 있어서 과거의 지식이 별로 이용될 수 없는 물리적 조건에서는 연령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과거의 지식이 영향을 주는 조건에서는 연령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Gris & Hall, 1976; Richman & Pittman, 1976)는 결과를 토대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아동기억력의 측정에서 아동에게 각색된 필름이나 연출된 사건, 사물의 그림을 보여준 후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물리적인 조건보다는 어떠한 과거의 지식이 필요한 면이 있

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아동과 성인에게 모두 그림 장면을 보여주고 그림 장면에서 있는 사물의 명칭을 말해주었으며, 도구에 있는 장면자체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유아들이 과거의 지식을 배제시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지식이 영향을 주지 않는 물리적인 조건에서의 연령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증언하는 상황이 어떠한 과거의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조건과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과거의 지식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성인과 유아의 기억 정보량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질문을 하여 경험한 내용을 자유롭게 보고하도록 한 개방형질문에서 없었던 사물을 있었던 것처럼 첨가하여 잘 못 보고한 응답물에서는 청년과 유아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유아가 청년보다 응답률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방형질문에서는 유아가 청년들과 동등하거나 더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있다는 Dent(1978), Lipton(1977), Goodman과 Reid(1986), Wells등(198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방형질문이 유아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유아에게 어떠한 답을 유도하거나 압력을 주지 않고, 모르는 것도 무응답으로 대답을 허용할 수 있도록 질문이 구성되어져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어진다.

둘째, 질문을 하여 경험한 내용을 '예', '아니오', '모른다'로 보고하도록 한 폐쇄형질문에서 청년과 유아의 회상기억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올바르게 회상한 정답률은 청년과 유아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형질문에서도 개방형질문과 같이 유아도 청년만큼 회상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년, 유아 모두 개방형질문보다 더 많은 정답을 회상해내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구체적인 단서회상이 더 많은 회상을 하도록 촉진 시켰으므로 볼 수 있다(Pollio & Gerow, 1968).

폐쇄형질문에서 사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잘못 회상한 오답들은 유아가 청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차이가 났다. 이는 폐쇄형질문에서 유아들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Moston(1987), Poole와 White(199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폐쇄형질문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폐쇄형질문 자체가 응답자들에게 제한된 수의 양자택일을 하도록 관습화되어 있으며(Dent & Stephenson, 1979), 유아의 경우 폐쇄형질문에서 '예'라고 대답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청년보다 오답을 더 많이 낸 것으로 보인다(Stone & Lemanek, 1990).

폐쇄형질문에서 사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회상하지 못하는 사물에 대해서 '모른다'사용비율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른다'사용은 유어나 청년 모두 적게 나타났는데, 특히 평균비율을 살펴보았을 때는 청년보다 유아가 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동들은 '모른다'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Carter등(199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질문내용의 암시를 통해 왜곡된 대답을 하도록하는 유도형질문에서 청년과 유아 회상기억에서 유도에 넘어가지 않고 올바르게 회상한 정답률의 경우 청년이 유아보다 더 높고, 유도에 넘어가 잘못된 회상을 한 응답률에 경우 유아가 청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차이가 났다. 이 결과는 유도형질문에서 아동은 성인들의 질문에 더 의존하며 성인들보다 암시성에 기억력 영향을 받기 쉽다는 Hudson와 Fivush(199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Loftus & Paimier, 1974; Lipscomb, Bregman, & McAllister, 1985; Ceci, Ross & Toglia, 1987; Zaragosa, 1989). 유아가 청년보다 잘못된 회상을 더 많이 하여 유아가 청년보다 정

확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유아들은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할 틀의 구조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며(Hudson & Fivush, 1990), 암시적인 내용에 대해 기억을 많이 감소시켰기 때문이다(Lipscomb, Bregman, & McAllister, 1985). 또한 아동들은 '예'라는 대답하는 속성이 강하며, 어른들이 어떠한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동은 성인에 대해서 좋은 대화 상대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유도형질문에서 유도한 내용에 대해서 회상하지 못할 때의 '모른다'사용비율은 청년이 유아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형의 경우에는 '모른다'사용이 통계상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유도형질문은 청년이 유아보다 '모른다' 사용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유아는 전반적으로 '모른다'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도형질문이나 폐쇄형질문 모두 유아는 '모른다'사용이 거의 없었는데 이 결과는 Carter등(199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청년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손상된 기억에 대해서 '모른다'를 사용하는 반면 유아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손상된 기억에 대해서도 대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Moston(1987), Saywitz, Moan와 Lampllear(1991)의 연구에서 아동에게 '잘 몰라요'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권고 할 경우 '모른다'사용이 증가했고, 오답률이 26%나 감소하였다는 결과에서 알 수 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질문에서 유아도 청년만큼의 올바르게 회상을 하였으며, 유아가 청년보다 잘못된 회상을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경우 다른 질문유형보다 개방형질문으로 보고하게 할 경우보다 더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량측면에 있어서는 청년, 유아 모두 폐쇄형질문보

다는 개방형질문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방형질문에서도 많은 정보량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인 개방형질문을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아동이 사물에 대한 개념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다든지, 성학대 내지 신체적인 학대에 대해서 인형이나 소품을 이용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아에게 질문을 하여 경험한 내용을 '예', '아니오', '모른다'로 보고하도록 한 폐쇄형질문에서는 유아도 청년만큼의 올바르게 회상을 하였으나, 유아가 청년보다 잘못된 회상을 더 많이 하여 유아가 청년보다 정확성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쇄형에서 오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고안된다면, 폐쇄형질문도 유아의 기억에서 정보를 이끌어 내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영국의 경우 유아증언을 위한 규정에서는 구체적인 개방형으로 사용한 뒤 얻을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폐쇄형질문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아니오'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폐쇄형질문에서 아동에게 '예/아니오' 이외의 답을 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지 않고, 현행 법집행상에서 신문자들에게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예-아니오로 응답해주세요.'라는 것처럼 진행되어진다면 정확성이 확연히 떨어질 것이며, 폐쇄형질문은 위험한 질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폐쇄형질문에서 '모른다'사용의 유아와 청년간의 차이는 의미를 가지지 못했지만, 유도형질문의 '모른다'사용에서 청년과 유아가 차이가 있음을 토대로 볼 때 유아에게 '모른다'에 대한 사용을 촉진한다면 Moston(1987), Saywitz, Moan와 Lampllear(1991)의 연구에서와 같이 오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따라서 유아에게 폐쇄형질문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자도 그 사실에 대해서 알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거나 '예/아니오' 이외의 정답을 사용하게 하거나 '모른다' 사용을 촉진시키는 등의 연구와 유아의 오답률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도형질문에 대해서 유아는 청년에 비해 올바르게 회상한 비율이 낮았으며, 유아가 청년보다 잘못된 회상을 더 많이 하여 유아가 청년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가 청년보다 회상하지 못하는 기억에 대해서 '모른다' 사용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는 청년에 비해 유도 질문에 잘 넘어갔으며, 아동은 성인의 이야기에 의존하였고, 청년보다 암시성이 높으로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영국의 '범죄소송 절차 위한 녹화된 아동 증인과의 인터뷰에 대한 올바른 시행 정관(Memorandum of Good Practice Video Record Interviews with Child Witnesses for Criminal Proceedings)'에서는 유도형질문에 대해서는 유아의 증언시, 재판장 안에서는 '주요증거물'이 제시하는 증인이 대답하기 전에 변호사가 유도질문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또한 유도질문이나 유도성이 들어가 있는 질문은 가장 최후에 질문단계까지 남겨두는 것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유도형질문으로 유아에게 질문하였을 때, 다른 질문유형에 비해 정보에 대해서 가

장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에서 유아에게 유도질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며, 현행법정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유도신문에 대해서 성인과 다르게 유아신문시 어떠한 제지가 필요하다.

넷째, 현행법정에서는 유아의 증언능력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논쟁에 대상이 되었을 뿐 유아의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하여 정확하게 대답을 얻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은 없었다. 지금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의 신문은 그들이 유아임을 고려하지 않고, 성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사건을 왜곡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권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증언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유아증인의 신문에 대한 시행정관 및 지침이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실제 법정에서 유아가 증언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재연할 수 없었고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에서의 통계적인 결과이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유아가 격을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과 실제 상황의 신문자와 신문장소에 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참고문헌

- 김영홍(1998). 어린이 성폭력 사범 수사·공판상의 문제점. 서울고등 검찰청 내부 자료.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 579 판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도 874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 3786 판결
- 대한민국 법률정보(1999). 대한민국 현행법령 CD-ROM. 서울: 보인기술.
- 박자경(1998). 유도질문이 아동진술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강미(1983). 인지적 관점에서 본 어머니와 유아간의 질문 대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재연(1996). 아동증언에 관한 문제와 연구방향. 아동연구: 숙명여대 아동연구센터, 11, 1-18.
- 이재연(1998). 아동증언의 신뢰성 판단에 대한 발달적 접근. 아동권리 연구, 2(2), 아동권리학회, 75-90.
- 20대 남자 영장 기각(1996. 8. 3). 조선일보. p.22

- 조현주(1987). 장면 지식이 선택적 기억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석사학위 논문.
- Azmitia, M., Merriman, W. E. & Perlmutter, M.(1987). A life-span study of the interaction of selectivity and knowledge in memory. *Child Development*, 58, 276-281.
- Carter, C. A., Bottoms, B. L. & Levine, M.(1996). Linguistic and socioemotional influence on the accuracy of children's reports. *Law and Human Behavior*, 20, 335-358.
- Cazden, C. B. (1970). Children's Questions: Their forms, functions, and roles in children. *Young Children*, March, 477-488.
- Ceci, S. J., Ross, D. F. & Toglia, M. P.(1987). Suggestibility in children's memory: Psycholegal implic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16(1), 38-49.
- Campione, J. C. & Brown A. L.(1977). Memory and metamemory development In educable retarded children. IN R. V. Kail and J. W. Hagen (Eds.), *Perspectives on the development of memory and cogni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
- Dent, H. R.(1978). Interviewing child witnesses. In M. M. Gruneberg, P. E. Morris, R. N. Sykes(Eds.). *Practical aspect of memory*. New York: Academic Press.
- Dent, H. R. & Stephenson, G. M.(1979).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techniques of questioning child witnesses.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 41-51.
- Fivsh, R., Hudson, J. & Nelson, K.(1984). Children's long-term memory for a novel event: An explorator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30, 303-316.
- Goodman, G. S. & Reid, R. S.(1986). Age difference in eyewitness testimony. *Law and Human Behavior*, 10, 317-332.
- Goodman, G. S., Aman, C. & Hirschman, J.(1987). Child sexual and physical abuse: Children's testimony. In S. J. Ceci M. P. Toglia & D. F. Ross (Eds.), *Children's eyewitness testimony*, New York: Springer-Verlag.
- Gris, M. F. & Hall, D. M.(1976). Encoding and incidental memory in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22, 58-66.
- Hudson, J. A. & Fivush, R.(Eds.)(1990). *Knowing and remembering in young childre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nter, I. M. L.(1964). *Memory*. Baltimore: Penguin Book.
- Lampinen J. M. & Smith V. L.(1995). The incredible child witness(and sometimes incredulous): child eyewitnesses' sensitivity to source credibility cu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0(5), 621-627.
- Lipscomb, T. J., Bregman, N. J. & McAllister, H. A.(1985). A developmental inquiry into the effects of postevent information on eyewitness accou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9(14), 551-556.
- Lipton, J.(1977). On the psychology of eyewitness testimon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 90-95.
- Loftus, E. F. & Paimer, J. C.(1974). Reconstruction of automobile destruction: An example of the interaction between language and memory.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3, 585-589.
- Moston, S.(1987). The suggestibility of children in interview studies. *First Language*, 7, 67-78.
- Pollio, H. R. & Gerow, J. R.(1968). The role of rules in recall.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81, 303-313.
- Poole, D. A. & White, L. T.(1995). Tell me again and again: stability and change in repeated testimonies of children and adults. In M.

- Zaragoza, J. R. Graham, G. C. N. Hall, R. Hirschman & Y. S. Ben-Porath(Eds.), *Memory and Testimony in the Child Witness*. Thousand Oaks, CA: Sage.
- Richman, C. L. & Pittman, L. (1976). Effects of meaningfulness on child free recall lear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12*, 406-465.
- Rudy, L. & Goodman, G. S.(1991). Effects of participation on children's reports: Implications for children's testimony. *Developmental Psychology, 27*, 527-538.
- Saywitz, K. J., Moan, S. F. & Lampear, V. S.(1991). *The effect of preparation on children's resistance to misleading questions*. Paper presented to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n Child Development Meeting, California.
- Stone, W., & Lemanek, K.(1990). Developmental issues in children's self-reports. In A. La Greca(Ed.), *Through the eyes of the child: Obtaining self-reports from children and adolescents*(pp.18-56). Boston: Allyn & Bacon.
- Wells, G. L., Tittle, J. W. & Luus, C. A. E.(1989). The perceived credibility of child eyewitnesses: What happens when they use their own words? In S. J. Ceci, D. F. Ross & M. P. Toglia(Eds.), *Perspective on children's testimony. Psychological Bulletin, 8*, 307-309.
- Whitcomb, D.(1992). *When the child is a victim* (2nd ed.).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Zaragoza, M. S.(1987). Memory, suggestibility and eyewitness testimony in children and adults. In S. J. Ceci, M. P. Toglia, & D. F. Ross(eds), *Children's eyewitness memory*(pp.53-78). New York: Springer-Verlag.